

단일화 안갯속... 호남 조직 '복지부동'

민주 국회의원 직접 나서 '문단속' 새누리당도 당원 배가운동 안간힘

12월 대선을 불과 45일 남겨둔 정치권이 지역 조직의 '복지부동'으로 고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에서 쉽사리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지 않음에 따라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 집안 단속에 나서는 등 문 후보 지지도를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까지 지역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고 현역 의원들로 하여금 문 후보의 지역을 한군데씩 맡아 지역위원장과 공동으로 조직을 가동,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 측으로 빠져나갈려는 전·현직 의원들과 당원들을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문제인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준비하는 등 집안 단속에도 분주하다.

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3일과 4일

이틀 동안 각 지역구에 상주하며 지역대의원 대회 및 당원교육, 길거리 정책 홍보전을 벌이며 총력전을 벌였다. 특히 각 지역위원회별로 대의원 대회 및 당원 교육을 통해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꺾고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뭉쳐야 한다"고 문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와 여수, 나주·화순, 광양, 영광·장성, 영암 등지에서 열린 길거리 정책 홍보전에는 박지원·유윤근·김성곤·이낙연·주승용 의원 등 지역위원장과 문성근·명계남 등 민주당 시민캠프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정책 홍보전을 통해 최근 화두로 떠오른 제18대 대선 투표 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박 후보 측의 말 바꾸기 행태를 비난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5일 오전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지역 전·현직 지방의원을 참석시킨 가운데 문제인 대선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이에 대한 지방정가의 시선은 골치만은 앓았다.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같은 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굳이 지지 서명 등을 받아 지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은 대선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당내 '민심 이탈'을 막기 위한 것

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이 지역구에 머물며 조직을 다지고, 정책홍보전을 벌이는 등 집안단속에 나서고 있는 배경에는 문 후보의 특별 주둔이 있었던 알려졌다.

새누리당도 '지역 가동'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원 명부 전수조사와 함께 당원 배가운동을 실시한 데 이어 지역 당원별 포럼 승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진 부산·경남(PK)의 경우 부산 지역 의원들이 선거일까지 지역으로 '하방(下放)'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도 지난 1일 대구, 2일 부산 의원 및 원내당 협회위원장들과 자리를 함께한 데 이어 틈틈이 지역별 의원·당협위원장들과 만나 최일선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 공천룰 뭘까?

광주동구청장 예비후보 13명 등록 마감

서류·면접 후 역량 심사·여론조사 예상

민주통합당의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모에 13명의 입지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가운데 공심위(공직후보자추천심의위원회)는 5~6일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일정을 진행하는 한편 최종 공천 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제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광주 선언'을 통해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주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이에 걸맞는 공천 료를 제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4일 민주통합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공모에 총 13명의 입지자들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민주당 공심위는 5일과 6일, 8일 연속적으로 회의를 개최,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진행하고 최종 공천 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당내외에서는 5일 공심위가 동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료를 확정짓고 6일과 8일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공천 료로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예비 후보를 4~5배수로 압축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후보별 역량 심사, 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점수로 환산, 전략 공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무려 13명에 이른다는 점에서 어떠한 공천 료이 제시되더라도 상당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앙당에서 파견된 당직자들은 지난 2일부터 광주 동구청장 보궐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에 대한 현

장 실사를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실사에서는 경선 및 단일화 불복, 현직 재직 당시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됐으며 관련 입지자들은 대리인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의 일정을 주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유태평 전 동구청장의 갑작스런 사퇴로 인해 동구에 연고가 없는 입지자들이 상당수 몰린 것으로 나타나 지역 연고 문제를 공천 심사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한 입지자는 "광주에서 지역 연고를 따진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광주 국회의원 대부분이 지역 연고가 없다는 점에서 지역 연고보다는 예비 후보들의 역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심위원이자 광주시당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이번 주 3차례의 공심위가 예정돼 있다"며 "공천 방법은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앙당과 협의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예비후보 명단(가나다 순) ▲김수정(여·50) (주)코엔피 대표 ▲노희용(49) 전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 ▲박문서(49) 법무사 ▲손재홍(52) 광주시의원 ▲신이섭(64) 전 광주시의원 ▲양해령(여·49) 전 광주시의원 ▲오형근(50) 성형외과 원장 ▲임형진(51)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종재(50) 전 광주시당 사무처장 ▲조영복(65) 전 동구의회의장 ▲조종진(59)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최정원(63) 전 동구의원 ▲홍기열(52) 동구의원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제과점 번개미팅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한 제과점에서 광주지역 젊은이들과 만나 빵을 나눠 먹으며 번개미팅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若無호남 是無대권’

〈호남이 없으면 대권도 없다〉

안철수 광주·전북서 2차 전국 순회 시작... 오늘 전남대서 강연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4일 2차 전국 순회의 첫 방문지로 광주와 전북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1차 전국 순회에서도 호남을 제일 먼저 찾았던 안 후보가 2차 순회에서도 첫 방문지로 한 것은 그만큼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그동안 호남 지지율에서 안 후보가 단일후보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상당한 격차로 앞서왔지만, 최근에는 문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안 후보로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안 후보는 이날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단일화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채 대선 화두로 '정치개혁'과 '격차 해소'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호남이 우리 역사의 변화와 흐름을 주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안 후보는 광주 동구 총장로 모 제과점에서 광주지역 젊은이들과 '번개 미팅'을 열어 "대선 출마 선언 이후 40일 동안 희망의 현장과 참여한 갈 등의 현장, 불행 현장 모두 다녀왔는데 만약 정치를 안 했다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며 "대선 출마" 결심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다른 후보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조직을 갖고 있지만, 기존 정치권처럼 돈·세력·정당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저를 (정치로) 불러주고, 지지해준 국민에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욱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하는데 기존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이는 국민의 정치개혁에 대한 바람을 잘 나타내는 점"이라며 정치개혁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 바뀌주겠다는 말 보다 선거과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뀌어야 한다"면서 "선거과정이야말로 진심으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 바뀌주겠다는 말 보다는 바꿀 수 있는 것은 선거과정에서 바뀌어야 한다"며 정치 쇄신도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경제민주화에 대해 세 후보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는 선거 이후에 진행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선거 등 정치과정에서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또 하나의 대선 화두로 '격차 해소'를 언급했다. 그는 "다른 정당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 한국 사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격차'라고 생각한다"며 "사람간의 격차, 세대간의 격차, 빈부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지역간 격차 등이 한국사회의 문제라는 점에서 '격차 해소'가 시대과제며,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앞서 지난 2일 제주 강연에서 지난 4·11 총선 결과와 관련 "계파를 만들어 계파 이익에 집착하다가 총선을 그린친 그분들이 책임"이라며 친노세력 등 민주당 주류를 직접 겨냥해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등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5일 전남대에서 초청 강연을 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그러다 태워먹는 거 많이 봤시다

우암학원 창학63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061) 360-505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Press Foundation

더 풍요롭게 더 건강하게!

1인2기

행복한 삶을 만드는 2가지 여가활동

무료한 생활에 생명을 불어넣고, 우울한 일상에 행복을 찾으려면 예술과 스포츠 2분야의 취미를 각각 가져보세요. 1인 2기만 실천해도 행복의 달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문화예술까지, 스포츠까지